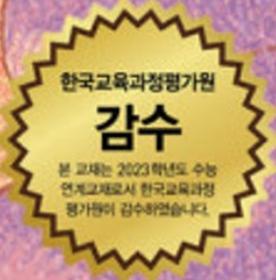




6월 9월 출제된 작품을 제외한
2023학년도 EBS 현대시 전 작품



2023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특강&수능완성
국어영역 **현대시**

본 교재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저이오노스가 편집한 교재입니다.
인간 또는 동물적 본성으로서 학습한 후 활용하시면 더 큰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차례

1부 수능특강 현대시

- 01 봄은 고양이로다(이장희)
- 02 울타리 밖(박용래)
- 03 유리창 1(정지용)
- 04 수정가(박재삼)
- 05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 대일 땅이 있었다면(김소월)
- 06 산곡-함주시초 5(백석)
- 07 님의 침묵(한용운)
- 08 모란이 피기까지는(김영랑)
- 09 활흔(이육사)
- 10 쉽게 씌어진 시(윤동주)
- 11 낙화(조지훈)
- 12 플라타너스(김현승)
- 13 도봉(박두진)
- 14 그리운 그 사람(김용택)
- 15 폐가에 부쳐(김관식)
- 16 성북동 비둘기(김광섭)
- 17 누룩(이성부)
- 18 얼은 강을 건너며(정희성)
- 19 바다와 나비(김기림)
- 20 안개의 나라(김광규)
- 21 참깨를 털면서(김준태)
- 22 배를 매며(장석남)
- 23 이별 이후(문정희)
- 24 강변역에서(정호승)
- 25 파발 가에서(김수영)
- 26 별을 굶다(김혜순)
- 27 구부러진 길(이준관)
- 28 산은 알고 있다(신석정)
- 29 조깅(황인숙)
- 30 종소리(이재무)
- 31 시(박목월)
- 32 살림(이병률)
- 33 아마존 수족관(최승호)
- 34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김기택)
- 35 빌려줄 몸 한 채(김선우)
- 36 맨발(문태준)

2부 수능완성 현대시

- 37 금붕어(김기림)
- 38 나비와 광장(김규동)
- 39 향수(정지용)
- 40 음지의 꽃(나희덕)
- 41 겨울 바다(김남조)
- 42 추억 - '감자 먹는 사람들', 빈센트 반 고흐(정진규)
- 43 결빙의 아버지(이수익)
- 44 강우(김춘수)
- 45 곡비(문정희)
- 46 소야(小夜)의 노래(오장환)
- 47 자화상 2(오세영)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고양이의 털에
고흔 봄의 향기(香氣)가 어리우도다.

금방울과 같이 호동그란 고양이의 눈에
밋친 봄의 불길이 흐르도다.

고요히 다물은 고양이의 입술에
폭은한 봄줄음이 떠돌아라.

날카롭게 쪽 뺨은 고양이의 수염에
푸른 봄의 생기(生氣)가 뛰놀아라.

- 이장희, 「봄은 고양이로다」 -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머리가 마늘쪽같이 생긴 고향의 소녀와
한여름을 알몸으로 사는 고향의 소년과
같이 낮이 설어도 사랑스러운 들길에
있다

그 길에 아지랑이가 피듯 태양이 타듯
제비가 날듯 길을 따라 물이 흐르듯 그렇게
그렇게

천연(天然)히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마을이 있다
오래오래 잔광(殘光)이 부신 마을이 있다
밤이면 더 많이 별이 뜨는 마을이 있다

- 박용래, 「울타리 밖」 -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열없이 붙어 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 언 날개를 파닥거린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 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물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니,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아아,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 정지용, 「유리창 1」 -

[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집을 치면, 정화수(精華水) 잔잔한 위에 아침마다 새로 생기는 물방울의 선선한 우물집이었을래. 또한 윤이 나는 마루의, 그 끝에 평상(平床)의, 갈앉은 뜨락의, 물 냄새 창창한 그런 집이었을래. 서방님은 바람 갈단들 어느 때고 바람은 어려 올 따름, 그 옆에 순순(順順)한 스러지는 물방울의 찬란한 춘향(春香)이 마음이 아니었을래.

하루에 몇 번쯤 푸른 산 언덕들을 눈 아래 보았을까나. 그러면 그때마다 일렁여 오는 푸른 그리움에 어울려, 흐느껴 물살 짓는 어깨가 얼마쯤 하였을까나. 진실로, 우리가 받들 산신령(山神靈)은 그 어디 있을까마는, 산과 언덕들의 만 리(萬里) 같은 물살을 굽어보는, 춘향은 바람에 어울린 수정(水晶)빛 임자가 아니었을까나.

- 박재삼, 「수정가」 -

[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는 꿈꾸었노라, 동무들과 내가 가지런히
 별 가의 하루 일을 다 마치고
 석양에 마을로 돌아오는 꿈을,
 즐거이, 꿈 가운데.

그러나 집 잃은 내 몸이여,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 대일 땅이 있었다면!
 이처럼 떠돌으라, 아침에 저물손에
 새라 새로운 탄식을 얻으면서.

동이랴, 남북이랴,
 내 몸은 떠가나니, 불지어다,
 희망의 반짝임은, 별빛이 아득임은,
 물결뿐 떠올라라, 가슴에 팔다리에.

그러나 어찌면 황송한 이 심정을! 날로 나날이 내 앞에는
 자칫 가늘은 길이 이어 가라. 나는 나아가리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보이는 산비탈엔
 온 새벽 동무들 저 저 혼자…… 산경(山耕)을 김매이는.
 - 김소월,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 대일 땅이
 있었다면」 -

[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돌각담에 머루 송이 깔하니 익고
 자갈밭에 아즈까리 알이 쏟아지는
 잠풍하니 별바른 골짜기다
 나는 이 골짜기에서 한겨울을 날려고 집을 한 채 구하였다

집이 뗏 집 되지 않는 골안은
 모두 터알에 김장감이 퍼지고
 트랙에 잡곡 난가리가 쌓여서
 어니 세월에 뷔일 듯한 집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자꼬 골안으로 깊이 들어갔다

골이 다한 산대 밑에 자그마한 돌능와집이 한 채 있어서
 이 집 남길동 단 안주인은 겨울이면 집을 내고
 산을 돌아 거리로 내려간다는 말을 하는데
 해바른 마당에는 꿀벌이 스무나문 통 있었다

낮 기울은 날을 햇벌 장글장글한 뒷마루에 걸어앉아서
 지난여름 도락구를 타고 장진(長津) 땅에 가서 꿀을 치고
 돌아왔다는 이 벌들을 바라보며 나는

날이 어서 추워져서 쭉국화꽃도 시들고 이 바즈런한 백성
 들도 다 제집으로 들은 뒤에 이 골안으로 올 것을 생각하
 였다

- 백석, 「산곡-함주시초 5」 -

[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적은 길을
걸어서 참어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든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
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
에 눈떨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
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견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 한용운, 「님의 침묵」 -

[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윈 설움에 잠길 테요
 오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덤덤한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삼백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웁네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

[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 골방의 커튼을 걷고
정성된 마음으로 황혼(黃昏)을 맞아들이노니
바다의 흰 갈매기들 같이도
인간(人間)은 얼마나 외로운 것이냐

황혼아 네 부드러운 손을 힘껏 내밀라
내 뜨거운 입술을 맘대로 맞추어 보련다
그리고 네 품 안에 안긴 모든 것에
나의 입술을 보내게 해 다오

저 십이성좌(十二星座)의 반짝이는 별들에게도
종(鐘)소리 저문 삼림(森林) 속 그윽한 수녀(修女)들에게도
시멘트 장관 위 그 많은 수인(囚人)들에게도
의지가 지없는 그들의 심장(心臟)이 얼마나 떨고 있는가

고비 사막(沙漠)을 걸어가는 낙타(駱駝) 탄 행상대(行商隊)
에게나

아프리카 녹음(綠陰) 속 활 쏘는 토인(土人)들에게라도
황혼아 네 부드러운 품 안에 안기는 동안이라도
지구(地球)의 반(半)쪽만을 나의 타는 입술에 맡겨 다오

내 오월(五月)의 골방이 아늑도 하니
황혼아 내일(來日)도 또 저 푸른 커튼을 걷게 하겠지
암암(暗暗)히 사라지긴 시냇물 소리 같아서
한번 식어지면 다시는 돌아올 줄 모르나 보다

- 이육사, 「황혼」 -

[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려
 육 첩 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 볼까,

땀내와 사랑 내 포근히 품긴
 보내 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 첩 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 -

[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꽃이 지기로소니
바람을 탓하라.

주렴 밖에 성긴 별이
하나둘 스러지고

귀촉도 울음 뒤에
머언 산이 다가서다.

촛불을 꺼야 하리
꽃이 지는데

꽃 지는 그림자
뜰에 어리어

하이얀 미담이가
우련 붉어라.

문혀서 사는 이의
고운 마음을

아는 이 있을까
저어하노니

꽃이 지는 아침은
울고 싶어라.

- 조지훈, 「낙화」 -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꿈을 아느냐 네게 물으면,
플라타너스,
너의 머리는 어느덧 파아란 하늘에 젖어 있다.

너는 사모할 줄을 모르나,
플라타너스,
너는 내게 있는 것으로 그들을 늘인다.

먼 길에 올 제,
홀로 되어 외로울 제,
플라타너스,
너는 그 길을 나와 같이 걸었다.

이제 너의 뿌리 깊이
나의 영혼을 불어넣고 가도 좋으련만,
플라타너스,
나는 너와 함께 신이 아니다!

수고론 우리의 길이 다하는 어느 날,
플라타너스,
너를 맞아 줄 검은 흙이 먼 곳에 따로이 있느냐?
나는 오직 너를 지켜 네 이웃이 되고 싶을 뿐,
그곳은 아름다운 별과 나의 사랑하는 창이 열린 길이다.

- 김현승, 「플라타너스」 -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산(山)새도 날아와
우짚지 않고,

구름도 떠가곤
오지 않는다.

인적 끊인 곳,
홀로 앉은
가을 산의 어스름.

호오이 호오이 소리 높여
나는 누구도 없이 불러 보나,

울림은 헛되이
빈 골 골을 되돌아올 뿐.

산그늘 길게 늘어지며
붉게 해는 넘어가고

황혼과 함께
이어 별과 밤은 오리니,

생은 오직 갈수록 쓸쓸하고,
사랑은 한갓 괴로울 뿐

그대 위하여 나는 이제도 이
긴 밤과 슬픔을 갖거니와

이 밤을 그대는 나도 모르는
어느 마을에서 쉬느뇨.

- 박두진, 「도봉」 -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오늘도 해 다 저물도록
 그리운 그 사람 보이지 않네
 언제부턴가 우리 가슴속 깊이
 뜨건 눈물로 숨은 그 사람
 오늘도 보이지 않네
 모낸 눈 가득 개구리들 울어
 저기 저 산만 어둡게 일어나
 돌아앉아 어깨 들먹이며 울고
 보릿대 들불은 들을 뚫고 치솟아
 들을 밝히지만
 그 불길 속에서도 그 사람 보이지 않네
 언젠가, 아 언젠가는
 이 칙칙한 어둠을 찢으며
 눈물 속에 꽃처럼 피어날
 저 남산 꽃 같은 사람
 어느 어둠에 덮여 있는지
 하루, 이 하루를 다 찾아다니다
 짐승들도 집 찾아드는
 저문 들길에서도
 그리운 그 사람 보이지 않네.

- 김용택, 「그리운 그 사람」 -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길을 가다 보니
 외딴집 한 채가 비어 있었다.
 무슨 이 집의 연척(緣戚)이라도 되는 양
 앞뒤를 한 바퀴 휘둘러보다.
 구렁 난 지붕에는
 풀 버섯이 같이 자라고
 썩은새 추녀 끝엔 박쥐도 와서 달릴 듯하다.
 먼지 낀 툇마루엔 진흙 자국만 인(印) 찍혔는데
 떨어진 문짝 찢어진 벽지 틈에서
 귀귀한 냄새가 훅 끼치고
 물이끼 퍼런 바가지 샘에
 무당개구리 몇 놈이 얼른 숨는다.

이걸 가지곤
 마른 강변에 덴 소 뉘뒸듯
 암만 바시대도
 필경 먹고살 도리가 없어
 별똥지기 천수답(天水畓)과 골아실 텃논이며
 논배미 밭다랑이 다 버려둔 채
 지게 품을 팔고
 막벌이를 하더라도 도회지라야 한다고……
 오쟁이 툇툇 털어 이른 아침을 지었을 게고
 가다가 차 안에서 먹을 보리개떡도 찢을 테지만
 한번 떠난 뒤 소식이 없고

장독대 옆에
 씨 떨어져 자라난 맨드라미 봉숭아꽃도 피었네.
 돌각담 한 모퉁이 대추나무에
 참새 한 마리 포르르 날아들어
 심심파적으로 주인의 후일담을 말해 주는 양
 저 혼자 재재거리다 말고 간다.
 찌는 말복(未伏) 철 저녁 셋째
 귀창 터지거라
 쓰르라미만 쓰라리게 울고 있더라.

- 김관식, 「폐가에 부쳐」 -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새벽부터 돌 깨는 산울림에 떨다가
 가슴에 금이 갔다
 그래도 성북동 비둘기는
 하느님의 광장 같은 새파란 아침 하늘에
 성북동 주민에게 축복의 메시지나 전하듯
 성북동 하늘을 한 바퀴 휘 돈다

성북동 메마른 골짜기에는
 조용히 앉아 콩알 하나 짝어 먹을
 널찍한 마당은커녕 가는 데마다
 채석장 포성이 메아리쳐서
 피난하듯 지붕에 올라 앉아
 아침 구공탄 굴뚝 연기에서 향수를 느끼다가
 산 1번지 채석장에 도루 가서
 금방 따 낸 돌 온기에 입을 닦는다

예전에는 사람을 성자(聖者)처럼 보고
 사람 가까이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사람과 같이 평화를 즐기던
 사랑과 평화의 새 비둘기는
 이제 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낳지 못하는 쫓기는 새가 되었다

- 김광섭, 「성북동 비둘기」 -

[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누룩 한 덩이가
 뜨는 까닭을 알겠느냐
 지 혼자 무력(無力)함에 부대끼고 부대끼다가
 어디 한군데로 나자빠져 있다가
 알맞은 바람 만나
 살며시 더운 가슴
 그 사랑을 알겠느냐

오가는 발길들 여기 멈추어
 밤새도록 우는 울음을 들었느냐
 지 혼자서 찾는 길이
 여럿이서도 찾는 길임을
 엄동설한 칼별은 알고 있나니
 무르팍 으깨져도 꽃피는 가슴
 그 가슴 울림 들었느냐

속 깊이 쌓이는 기다림
 삭고 삭아 부서지는 일 보았느냐

지가 죽어 썩어 문드러져
 우리 고향 좋은 물 만나면
 덩달아서 함께 끓는 마음을 알겠느냐
 춤도 되고 기쁨도 되고
 해 솟는 얼굴도 되는 죽음을 알겠느냐

아 지금 감춰 둔 누룩 뜨나니
 냄새 퍼지나니

- 이성부, 「누룩」 -

[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얼음을 깨다
 강에는 얼은 물
 깰수록 청청한
 소리가 난다
 강이여 우리가 이를 수 없어
 물은 남몰래 소리를 이루었나
 이 강을 이루는 물소리가
 겨울에 죽은 땅의 목청을 트고
 이 나라의 어린 아희들아
 물은 또한 이 땅의 풀잎에도 운다
 얼음을 깨다
 얼음을 꺼서 물을 마신다
 우리가 스스로 흐르는 강을 이루고
 물이 제 소리를 이를 때까지
 아희들아

- 정희성, 「얼은 강을 건너며」 -

[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무도 그에게 수심(水深)을 일러 준 일이 없기에
흰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청(靑)무우밭인가 해서 내려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공주(公主)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삼월(三月)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 김기림, 「바다와 나비」 -

[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언제나 안개가 짙은
 안개의 나라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므로
 안개 속에 사노라면
 안개에 익숙해져
 아무것도 보려고 하지 않는다
 안개의 나라에는 그러므로
 보려고 하지 말고
 들어야 한다
 듣지 않으면 살 수 없으므로
 귀는 자꾸 커진다
 하얀 안개의 귀를 가진
 토끼 같은 사람들이
 안개의 나라에 산다

- 김광규, 「안개의 나라」 -

[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산그늘 내린 밭 귀퉁이에서 할머니와 참깨를 툰다.
 보아하니 할머니는 슬슬 막대기질을 하지만
 어두워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젊은 나는
 한 번을 내리치는 데도 힘을 더한다.

세상사(世上事)에는 흔히 맛보기가 어려운 쾌감이
 참깨를 털어 대는 일엔 희한하게 있는 것 같다.

한 번을 내리쳐도 셀 수 없이

좌아좌아 쏟아지는 무수한 흰 알맹이들

도시(都市)에서 십 년을 가차이 살아 본 나로선

기가 막히게 신나는 일인지라

휘파람을 불어 가며 몇 다발이고 연이어 털어 댄다.

사람도 아무 곳이나 한 번만 기분 좋게 내려치면

참깨처럼 좌아좌아 쏟아지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정신없이 털다가

“아가, 모가지까지 털어져선 안 되느니라.”

할머니의 가엾어하는 꾸중을 듣기도 했다.

- 김준태, 「참깨를 털면서」 -

[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등 뒤로 털썩
밧줄이 날아와 나는
뛰어가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맨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배는 멀리서부터 닿는다

사랑은,
호젓한 부둣가에 우연히,
별 그럴 일도 없으면서 넋 놓고 앉았다가
배가 들어와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배를 매게 되는 것

잔잔한 바닷물 위에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떠 있는 배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매어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
온종일을 떠 있다

- 장석남, 「배를 매며」 -

[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너 떠나간 지
 세상의 달력으론 열흘 되었고
 내 피의 달력으론 십 년 되었다

나 슬픈 것은
 네가 없는데도
 밤 오면 잠들어야 하고
 끼니 오면
 입안 가득 밥알 떠 넣는 일이다

옛날 옛날 적
 그 사람 되어 가며
 그냥 그렇게 너를 잊는 일이다

이 아픔 그대로 있으면
 그래서 숨 막혀 나 죽으면
 원도 없으리라

그러나
 나 진실로 슬픈 것은

언젠가 너와 내가
 이 뜨거움 까맣게
 잊는다는 일이다

- 문정희, 「이별 이후」 -

[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너를 기다리다가
 오늘 하루도 마지막 날처럼 지나갔다
 너를 기다리다가
 사랑도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바람은 불고 강물은 흐르고
 어느새 강변의 불빛마저 꺼져 버린 뒤
 너를 기다리다가
 열차는 또다시 내 가슴 위로 소리 없이 지나갔다
 우리가 만남이라고 불렀던
 첫눈 내리는 강변역에서
 내가 아직도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나의 운명보다 언제나
 너의 운명을 더 슬퍼하기 때문이다
 그 언젠가 겨울 산에서
 저녁 별들이 흘리는 눈물을 보며
 우리가 사랑이라고 불렀던
 바람 부는 강변역에서
 나는 오늘도
 우리가 물결처럼
 다시 만나야 할 날들을 생각했다

- 정호승, 「강변역에서」 -

[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삶은 계란의 껍질이
벗겨지듯
묵은 사랑이
벗겨질 때
붉은 파밭의 푸른 새싹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먼지 앓은 석경 너머로
너의 그림자가
움직이듯
묵은 사랑이
움직일 때
붉은 파밭의 푸른 새싹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새벽에 준 조로의 물이
대낮이 지나도록 마르지 않고
젖어 있듯이
묵은 사랑이
뉘우치는 마음의 한복판에
젖어 있을 때
붉은 파밭의 푸른 새싹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 김수영, 「파밭 가에서」 -

[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당역 4호선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려고
에스컬레이터에 실려 올라가서
뒤돌아보다 마주친 저 수많은 얼굴들
모두 붉은 흙 가면 같다
얼마나 많은 불가마들이 저 얼굴들을 구워 냈을까

무표정한 저 얼굴 속 어디에
아침마다 두 눈을 번쩍 뜨게 하는 힘 숨어 있었을까
밖에서는 기척도 들리지 않을 이 깊은 땅속을
밀물져 가게 하는 힘 숨어 있었을까

하늘 한구석 별자리마다 쪼그리고 앉아
별들을 가마에서 구워 내는 분 계시겠지만
그분이 점지하는 운명의 별빛 지상에 내리겠지만
물이 쏟아진 듯 물려가는
땅속은 너무나 깊어
그 별빛 여기까지 닿거나 할는지

수많은 저 사람들 몸속마다에는
밖에선 볼 수 없는 뜨거움이 일렁거리나 보다
저마다 진흙으로 돌아가려는 몸을 일으켜 세우는
불가마 하나씩 깃들어 있나 보다

저렇듯 십 년 이십 년 오십 년 얼굴을 구워 내고 있었으니
모든 얼굴은 뜨거운 속이 굽는 붉은 흙 가면인가 보다

- 김혜순, 「별을 굽다」 -

[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는 구부러진 길이 좋다.
 구부러진 길을 가면
 나비의 밥그릇 같은 민들레를 만날 수 있고
 감자를 심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날이 저물면 울타리 너머로 밥 먹으라고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다.
 구부러진 하천에 물고기가 많이 모여 살듯이
 들꽃도 많이 피고 별도 많이 뜨는 구부러진 길.
 구부러진 길은 산을 품고 마을을 품고
 구불구불 간다.
 그 구부러진 길처럼 살아온 사람이 나는 또한 좋다.
 반듯한 길 쉽게 살아온 사람보다
 흙투성이 감자처럼 울퉁불퉁 살아온 사람의
 구불구불 구부러진 삶이 좋다.
 구부러진 주름살에 가족을 품고 이웃을 품고 가는
 구부러진 길 같은 사람이 좋다.

- 이준관, 「구부러진 길」 -

[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산은 어찌 보면 운무(雲霧)와 더불어 항상 저 아득한 하늘을 연모하는 것 같지만 오래오래 겪어 온 피물은 역사의 그 생생한 기록을 잘 알고 있다.

산은 알고 있다. 하늘과 땅이 처음 열리고 그 기나긴 세월에 묻어 간 모든 서럽고 빛나는 이야기를 너그러운 가슴에서 철철이 피고 지는 꽃들의 가냘픈 이야기보다도 더 역력히 알고 있다.

산은 가슴 언저리에 그 어깨 언저리에 스며들던 더운 피와 그 피가 남기고 간 이야기와 그 이야기가 마련하는 역사와 그 역사가 이룩할 줄기찬 합창소리도 알고 있다. 산은 역력히 알고 있는 것이다.

이슬 젖은 하얀 측루(鬮樓)가 덩구는 저 능선과 골짜구니에는 그리도 술한 풀과 나무와 산새와 산새들의 노랫소리와 그리고 그칠 줄 모르고 흘러가는 시냇물과 시냇물이 모여서 부르는 노랫소리와 철쭉꽃 나리꽃과 나리꽃에 내려앉은 나비의 날개에 사운대는 바람과 바람결에 묻혀 가는 꿈과 생시를 산은 잘 알고 있다.

그러기에 산은 우리들이 내일을 믿고 살아가듯 언제나 머연 하늘을 바라보고 가슴을 벌린 채 피 묻은 역사의 기록을 외우면서 손을 들어 우리들을 부르고 있는지도 모른다.

산이여!

나도 알고 있다.

네가 역력히 알고 있는 것을

나도 역력히 알고 있는 것이다.

- 신석정, 「산은 알고 있다」 -

[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후, 후, 후, 후! 하, 하, 하, 하!
 후, 후, 후, 후! 하, 하, 하, 하!
 후, 하! 후, 하! 후하! 후하! 후하! 후하!

땅바닥이 뒹다, 나무가 뒹다.
 햇빛이 뒹다, 버스가 뒹다, 바람이 뒹다.
 창문이 뒹다, 비둘기가 뒹다.
 머리가 뒹다.

잎 진 나뭇가지 사이
 하늘의 환한
 맨몸이 뒹다,
 허파가 뒹다.

하, 후! 하, 후! 하후! 하후! 하후! 하후!
 뒹꿈치가 들린 것들아!
 밤새 새로 반죽된
 공기가 뒹다.
 내 생(生)의 드문
 아침이 뒹다.

독수리 한 마리를 삼킨 것 같다.

- 황인숙, 「조깅」 -

[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랫마을 성당에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 종소리들
 그중 하나 대열에서 빠져나와
 몰래 골목, 골목을 돌아
 하늘 가장 가까운 마을 찾아 나선다
 맨발로 가파른 빙판길 오르다,
 오르다가 미끄러지고
 오르다가 미끄러져
 무릎 까져 피 흘리는 하나님

아랫마을 성당에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 종소리들
 저 보이지 않는 견고한 평화의 울타리

- 이재무, 「종소리」 -

[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는

흔들리는 저울대.

시(詩)는

그것을 고누려는 추(錘).

겨우 균형이 잡히는 위치에

한 가락의 미소.

한 줌의 위안.

한 줄기의 운율.

이내 무너진다.

하늘 끝과 끝을 일렁대는 해와 달

아득한 진폭(振幅)

생활이라는 그것.

- 박목월, 「시」 -

[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오늘도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일일이 별들을 둘러보고 오느라구요

하늘 맨 꼭대기에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볼 때면
 압정처럼 박아 놓은 별의 뽀죽한 뒤통수만 보인다고
 내가 전에 말했던가요

오늘도 새벽에게 나를 업어다 달라고 하여
 첫 별의 불꽃에서부터 끝 별의 생각까지 그어 놓은
 큰 별의 가슴팍으로부터 작은 별의 멍까지 이어 놓은
 헐렁해진 실들을 하나하나 매 주었습니다

오늘은 별을 두 개 묻었고
 별을 두 개 캐냈다고 적어 두려 합니다

참 돌아오던 길에는
 많이 자란 달의 손톱을 조금 바짝 깎아 주었습니다
 - 이병률, 「살림」 -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마존 수족관 집의 열대어들이
 유리 벽에 끼어 헤엄치는 여름밤
 세검정 길
 장어구이집 창문에서 연기가 나고
 아스팔트에서 고무 탄내가 난다
 열난 기계들이 길을 끓이면서
 질주하는 여름밤
 상품들은 덩굴져 자라나며 색색이 종이꽃을 피우고 있고
 철근은 밀림, 간판은 열대지만
 아마존강은 여기서 아득히 멀어
 열대어들은 수족관 속에서 목마르다
 변기 같은 컷바퀴에 소음 부엉거리는
 여름밤
 열대어들에게 시(詩)를 선물하니

 노란 달이 아마존 강물 속에 향기롭게 출렁이고
 아마존 강변에 후리지아 꽃들이 만발했다
 - 최승호, 「아마존 수족관」 -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텔레비전을 끄자
 풀벌레 소리
 어둠과 함께 방 안 가득 들어온다
 어둠 속에서 들으니 벌레 소리들 환하다
 별빛이 묻어 더 낭랑하다
 귀뚜라미나 여치 같은 큰 울음 사이에는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도 있다
 그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한다
 내 귀에는 들리지 않는 소리들이 드나드는
 까맣고 좁은 통로들을 생각한다
 그 통로의 끝에 두근거리며 매달린
 여린 마음들을 생각한다
 발뒤꿈치처럼 두꺼운 내 귀에 부딪혔다가
 되돌아간 소리들을 생각한다
 브라운관이 뿜어낸 현란한 빛이
 내 눈과 귀를 두껍게 채우는 동안
 그 울음소리들은 수없이 나에게 왔다가
 너무 단단한 벽에 놀라 되돌아갔을 것이다
 하루살이들처럼 전등에 부딪혔다가
 바닥에 새까맣게 떨어졌을 것이다
 크게 밤공기 들이쉬니
 허파 속으로 그 소리들이 들어온다
 허파도 별빛이 묻어 조금은 환해진다
 - 김기택,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 -

[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속이 팍 찬 배추가 본디 속부터
 단단하게 웅이지며 자라는 줄 알았는데
 걸잎 속잎이랄 것 없이
 저 벌어지고 싶은 마음대로 벌어져 자라다가
 그중 땅에 가까운 잎 몇 장이 스스로 걸잎 되어
 나비에게도 몸을 주고 벌레에게도 몸을 주고
 즐거이 자기 몸을 빌려주는 사이
 결구(結球)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라
 알뜰을 달듯 속이 차 오는 거라
 마음이 이미 길 떠나 있어
 몸도 곧 길 위에 있게 될 늦은 계절에
 채마밭 조금 빌려 무심코 배추 모종 심어 본 후에
 알게 된 것이다
 빌려줄 몸 없이는 저녁이 없다는 걸
 내 몸으로 짓는 공양간 없이는
 등불 하나 오지 않는다는 걸
 처음 자리에 길은 없는 거였다

- 김선우, 「빌려줄 몸 한 채」 -

[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물전 개조개 한 마리가 움막 같은 몸 바깥으로 맨발을
내밀어 보이고 있다

죽은 부처가 슬피 우는 제자를 위해 관 밖으로 잠깐 발을
내밀어 보이듯이 맨발을 내밀어 보이고 있다

필과 물속에 오래 담겨 있어 부르튼 맨발

내가 조문하듯 그 맨발을 건드리자 개조개는

최초의 궁리인 듯 가장 오래 하는 궁리인 듯 천천히 발을
거두어 갔다

저 속도로 시간도 길도 흘러왔을 것이다

누군가를 만나러 가고 또 헤어져서는 저렇게 천천히 돌아
왔을 것이다

늘 맨발이었을 것이다

사랑을 잃고서는 새가 부리를 가슴에 묻고 밤을 견디듯이
맨발을 가슴에 묻고 슬픔을 견디었으리라

아 — 하고 집이 울 때

부르튼 맨발로 양식을 탁발하러 거리로 나왔을 것이다

맨발로 하루 종일 길거리에 나섰다가

가난의 냄새가 벌벌벌벌 풍기는 움막 같은 집으로 돌아오면

아 — 하고 울던 것들이 배를 채워

저렇게 캄캄하게 울음도 멎었으리라

- 문태준, 「맨발」 -

[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금붕어는 어항 밖 대기(大氣)를 오를래야 오를 수 없는 하늘이라 생각한다.

금붕어는 어느새 금빛 비늘을 입었다 빨간 꽃 이파리 같은 꼬랑지를 폈다. 눈이 가락지처럼 빠져져 나왔다.

인젠 금붕어의 엄마도 화장한 따님을 몰라 볼게다.

금붕어는 아침마다 말숙한 찬물을 뒤집어 쓴다 떡가루를 흰손을 천사(天使)의 날개라 생각한다. 금붕어의 행복은 어항 속에 있으리라는 전설(傳說)과 같은 소문도 있다.

금붕어는 유리벽에 부대쳐 머리를 부시는 일이 없다. 얇전한 수염은 어느새 국경(國境)임을 느끼고는 아담하게 꼬리를 젓고 돌아선다. 지느러미는 칼날의 흉내를 내서도 향아리를 끊는 일이 없다.

아침에 책상우에 옮겨 놓으면 창문으로 비스듬이 햇볕을 녹이는

붉은 바다를 흘겨본다. 꿈이라 가르켜진 그 바다는 넓기도 하다고 생각한다.

금붕어는 아롱진 거리를 지나 어항 밖 대기(大氣)를 건너서 지나해(支那海)의

한류(寒流)를 끊고 헤엄쳐 가고 싶다. 쓴 매개를 와락와락 삼키고 싶다. 옥도(沃度)빛 해초(海草)의 산림속을 검푸른 비늘을 입고

상어(鰐魚)에게 쪼겨댁겨 보고도 싶다

금붕어는 그러나 작은 입으로 하늘보다도 더 큰 꿈을 오므려 죽어버려야 한다. 배설물(排泄物)의 침전(沈澱)처럼 어항 밑에는

금붕어의 연령(年齡)만 쌓여간다.

금붕어는 오를래야 오를 수 없는 하늘보다도 더 먼 바다를 자꾸만 돌아가야만 할 고향(故鄉)이라 생각한다.

- 김기림, 「금붕어」 -

[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기증 나는 활주로의
 최후의 절정에서 흰나비는
 돌진의 방향을 잊어버리고
 피 문은 육체의 파편들을 굶어본다

기계처럼 작열한 심장을 축일
 한 모금 샘물도 없는 허망한 광장에서
 어린 나비의 안막을 차단하는 건
 투명한 광선의 바다뿐이었기에—

진공의 해안에서처럼 과묵한 묘지 사이사이
 숨가쁜 제트기의 백선과 이동하는 계절 속—
 불길처럼 일어나는 인광(燐光)의 조수에 밀려
 흰나비는 말없이 이즈러진 날개를 파닥거린다

하얀 미래의 어느 지점에
 아름다운 영토는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푸르른 활주로의 어느 지표에
 화려한 희망은 피고 있는 것일까

신도 기적도 이미
 승천하여버린 지 오랜 유역—
 그 어느 마지막 종점을 향하여 흰나비는
 또 한번 스스로의 신화와 더불어 대결하여본다

- 김규동, 「나비와 광장」 -

[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백이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 그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 리야.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뷔인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조름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짚벼개를 돌아 고이시는 곳,

— 그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 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아란 하늘빛이 그림어
 함부로 쓴 화살을 찾으려
 풀섧 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든 곳,

— 그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 리야.

전설(傳說)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의와
 아무러치도 앓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 벗은 안해가
 따가운 해사살을 등에 지고 이삭 짓던 곳,

— 그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 리야.

하늘에는 석근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밭을 읊기고,
 서리 까마귀 우지짚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 앉어 도란도란거리는 곳,

— 그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 리야.

- 정지용, 「향수」 -

[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는 썩어 가는 참나무 पे,
 벌목의 슬픔으로 서 있는 이 땅
 패역의 골짜기에서
 서로에게 기대 채 겨울을 난다
 함께 썩어 갈수록
 바람은 더 높은 곳에서 우리를 흔들고
 이윽고 잠자던 흙씨들 일어나
 우리 몸에 뚫렸던 상처마다 버섯이 피어난다
 황홀한 음지의 꽃이여
 우리는 서서히 썩어 가지만
 너는 소나기처럼 후드득 피어나
 그 고통을 순간에 멈추게 하는구나
 오, 버섯이여
 산비탈에 구르는 낙엽으로도
 골짜기를 떠도는 바람으로도
 덮을 길 없는 우리의 몸을
 뿌리 없는 너의 독기로 채우는구나

- 나희덕, 「음지의 꽃」 -

[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겨울 바다에 가 보았지
 미지(未知)의 새
 보고 싶던 새들은 죽고 없었네

그대 생각을 했건만도
 매운 해풍에
 그 진실마저 눈물져 얼어 버리고

허무의
 불
 물이랑 위에 불붙어 있었네

나를 가르치는 건
 언제나
 시간……
 끄덕이며 끄덕이며 겨울 바다에 섰었네

남은 날은
 적지만

기도를 끝낸 다음
 더욱 뜨거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그런 영혼을 갖게 하소서

남은 날은
 적지만

겨울 바다에 가 보았지
 인고(忍苦)의 물이
 수심(水深) 속에 기둥을 이루고 있었네

- 김남조, 「겨울 바다」 -

[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식구들은 둘러앉아
 삶은 감자를 말없이 먹었다
 신발의 진흙도 털지 않은 채
 흐린 불빛 속에서
 늘 저녁을 그렇게 때웠다
 저녁 식탁이
 누구의 손 하나가 잘못 놓여도
 빼격거렸다
 다만 셋째 형만이
 언제고 떠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된 나날이었다

잠만은 편하게 잤다
 잘 삶아진 굵은 감자알들처럼
 마디 굵은 우리 식구들의 손처럼
 서걱서걱 흙을 파고 나가는
 삽질 소리들을 꿈속에서도 들었다
 누구나 삽질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타고난 사람들이었다
 맛있는 잠! 잠에는
 막힘이 없었다

새벽에는
 빗줄기가 조금 창문을 두드렸다
 제일 부드러웠다
 새싹들이 돋고 있으리라 믿었다
 오늘은 하루쯤 쉬어도 되리라
 식구들은
 목욕탕엘 가고 싶었다

- 정진규, 「추억 - '감자 먹는 사람들', 빈센트 반 고흐」 -

[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머님,
 제 예닐곱 살 적 겨울은
 목조 적산 가옥 이층 다다미방의
 별거숭이 유리창 깨질 듯 울어 대던 외풍 탓으로
 한없이 추웠지요, 밤마다 나는 벌벌 떨면서
 아버지 가랑이 사이로 시린 발을 밀어 넣고
 그 가슴팍에 벌레처럼 파고들어 얼굴을 묻은 채
 겨우 잠이 들곤 했었지요.

요즈음도 추운 밤이면
 곁에서 잠든 아이들 이불깃을 덮어 주며
 늘 그런 추억으로 마음이 아프고,
 나를 품어 주던 그 가슴이 이제는 한 줌 뺏가루로 삭아
 붉은 흙에 자취 없이 뒤섞여 있음을 생각하면
 옛날처럼 나는 다시 아버지 곁에 눕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오늘은 영하의 한강교를 지나면서 문득
 나를 품에 안고 추위를 막아 주던
 예닐곱 살 적 그 겨울밤의 아버지가
 이승의 물로 화신해 있음을 보았습니다.
 품 안에 부드럽고 여린 물살은 무사히 흘러
 바다로 가라고,
 팡 팡 얼어붙은 잔등으로 흑한을 막으며
 하얗게 얼음으로 엮드려 있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 이수익, 「결빙의 아버지」 -

[4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조금 전까지는 거기 있었는데
 어디로 갔나,
 밥상은 차려 놓고 어디로 갔나,
 넘치지지미 맵싸한 냄새가
 코를 맵싸하게 하는데
 어디로 갔나,
 이 사람이 갑자기 왜 말이 없나,
 내 목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되 돌아온다.
 내 목소리만 내 귀에 들린다.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잠시 누웠나,
 옆구리 담피가 다시 도졌나, 아니 아니
 이번에는 그게 아닌가 보다.
 한 뼘 두 뼘 어둠을 적시며 비가 온다.
 흑시나 하고 나는 밖을 기웃거린다.
 나는 풀이 죽는다.
 빗발은 한 치 앞을 못 보게 한다.
 웬지 느닷없이 그렇게 퍼붓는다.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고,

- 김춘수, 「강우」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시사철 엉겅퀴처럼 푸르죽죽하던 옥레 엄마는
곡(哭)을 팔고 다니던 곡비(哭婢)였다

이 세상 가장 슬픈 사람들의 울음
천지가 진동하게 대신 울어 주고
그네 울음에 꺼져 버린 땅 밑으로
떨어지는 무수한 별똥 주워 먹고살았다
그네의 허기 위로 쏟아지는 별똥 주워 먹으며
까무러칠 듯 울어 대는 곡(哭)소리에
이승에는 눈 못 감고 떠도는 죽음 하나도 없었다
저승으로 갈 사람 편히 떠나고
남은 이들만 잠시 서성일 뿐이었다

가장 아프고 가장 요염하게 울음 우는
옥레 엄마 머리 위에
하늘은 구멍마다 별똥 매달아 놓았다

그네의 울음은 언제 그칠 것인가
엉겅퀴 같은 옥레야, 우리 시인의 딸아
너도 어서 전문적으로 우는 법 깨쳐야 하리

이 세상 사람들의 울음
까무러치게 대신 우는 법
알아야 하리

- 문정희, 「곡비」 -

[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무거운 쇠사슬 끄는 소리 내 맘의 뒤를 따르고
 여기 쓸쓸한 자유는 곁에 있으나
 푹푹이 흰 눈은 흘날려 이정표 썩은 막대 고이 묻히고
 드런 발자국 함부로 찍혀
 오죽 치미는 미움
 낮선 집 울타리에 돌을 던지니 개가 짖는다.

어메야, 아죽도 차디찬 묘 속에 살고 있느냐.
 정월 기울어 낙엽송에 쌓인 눈 바람에 흐트러지고
 산짐승의 우는 소리 더욱 처량히
 개울물도 파랗게 얼어
 진눈깨비는 금시에 내려 비애를 적시울 듯
 도형수(徒形囚)의 발은 무겁다.

- 오장환, 「소야(小夜)의 노래」 -

[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전신이 검은 까마귀,
 까마귀는 까치와 다르다.
 마른 가지 끝에 높이 앉아
 먼 설원을 굽어보는 저
 형형한 눈,
 고독한 이마 그리고 날카로운 부리.
 얼어붙은 지상에는
 그 어디에도 낯알 한 톨 보이지 않지만
 그대 차라리 눈발을 뒤지다 굽어 죽을지언정
 결코 까치처럼
 인가의 안마당을 넘보진 않는다.
 검은 테면
 철저하게 검은라. 단 한 개의 깃털도
 남기지 말고……
 겨울 되자 온 세상 수북이 눈은 내려
 저마다 하얗게 하얗게 분장하지만
 나는
 빈 가지 끝에 홀로 앉아
 말없이
 먼 지평선을 응시하는 한 마리
 검은 까마귀가 되리라.

- 오세영, 「자화상 2」 -

